

한-아세안FTA 영향 및
대응방안 설문조사

2005. 5.

KOTRA 통상전략팀

설문조사 개요

■ 조사 개요

- 설문대상 : 아세안 5개국(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, 베트남, 말레이시아) 주재 우리나라 지상사 및 현지법인
- 조사방법 : 5개국주재 현지무역관에서 팩스 및 이메일로 조사
- 조사기간 : 4.11~27
- 설문지 배포 : 915매
- 설문지 회수 : 159매(회수율 : 17.4%)

■ 조사 의의

- 아세안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서 AFTA를 통한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에 이어 일본, 인도, 호주 등 우리의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-아세안FTA타결시 이역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-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(지상사, 현지법인)들의 한-아세안FTA에 대한 견해와 영향,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을 측면 지원하고자 함

■ 조사 한계

- 아세안진출 1천여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지법인의 경우 설문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 전체 회수율이 낮은 편임
- 수출증가액 등 일부 항목에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조사에 애로

목 차

1. 설문기업 현황	1
2. 기업활동에서의 주재국과의 관계	4
3. 한-아세안FTA교섭체결에 대한 인지 정도	5
4. 한-아세안FTA체결에 대한 견해	6
5. 한-아세안FTA체결해야 하는 이유	7
5-1. 주재국의 비관세 장벽 유형	9
5-2. 주력품목의 대주재국 수입관세	11
6. 수입관세 철폐시 연간 수출증가 예상액	13
6-1. 한-아세안FTA의 영향이 없다면 그 이유	16
6-2.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현지 예상 수출마진	18
6-3. 수출마진 발생에 따른 현지 가격정책	20
7. 주재국에서의 경쟁국가	22
8. 한-아세안FTA체결시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 전망	24
9. 한-아세안FTA체결에 대비한 종합 대응방안	26

설문 요약

○ 설문기업 현황

- 기업규모별로는, 중소기업 64%, 대기업은 36%임
- 진출형태별로는, 현지법인 62%, 지상사는 38%로 나타남
- 주력품목은 화학, 플랜트, 건설장비, 금속을 포함한 중화학 36%, 의류식품 21%, 전기전자 9%, IT 4% 순임

○ 기업활동에서의 주재국과의 관계

- 수출 38%, 투자진출 31%, 수입 23%, 제휴 6%, 기타 2% 순

○ 한-아세안 FTA 인지 여부

- 설문응답 기업의 79%가 약간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대답
- 이름밖에 모른다는 18%, 전혀 모른다는 3%에 불과

○ 한-아세안FTA에 대한 견해

- 설문응답 기업의 91%가 FTA체결에 찬성하고 있으며, 잘 모르겠다는 포함한 기타 의견은 9%에 불과

○ 한-아세안FTA체결 지지 이유

- 아세안지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가 56%로 제일 많으며,
- 아세안지역이 경쟁국과 먼저 FTA체결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7%에 달함

○ 주재국의 비관세장벽 유형

-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고관세 부과외에도 각종 규제 및 규정의 불투명성, 수입통관시의 과도한 서류요구, 까다로운 등록 및 테스트 요구, 자국의 표준 및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

○ 주력품목의 대주재국 수입관세

- 응답기업의 60%는 주력품목의 수입관세가 5~30%대라고 대답
- 특히, 말레이시아는 철강 및 화학 50%, 자동차에는 80%, 베트남의 경우 일부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50%, 직물 및 알미늄 주방기기에 40%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됨

○ 수입관세 철폐시 수출 증가 예상액

- 조사대상 기업의 75%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출이 증가한다고 응답
- 특히, 말레이시아 주재 H사는 자동차 100%, 베트남주재 I사는 건설자재 및 장비 50%이상, H사는 전선 100%이상 증가 예상
- 연간 수출 증가액은 1백만불에서 5백만불사이가 46%로 가장 많으며, 대기업 지상사일수록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남

○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예상마진

- 조사대상 기업의 약 70%는 수출마진이 증가한다고 답했으며, 증가비율은 '5%미만(39%)' 및 '5~10%(17%)'가 과반수인 56% 차지

○ 수입마진에 따른 현지 가격정책

- 응답기업의 46%가 '일부는 마진으로 하고 일부는 가격인하에 반영하겠다'고 밝힘
- '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'는 30%, '관세인하분 만큼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'는 17%로 나타남

○ 주재국에서의 경쟁국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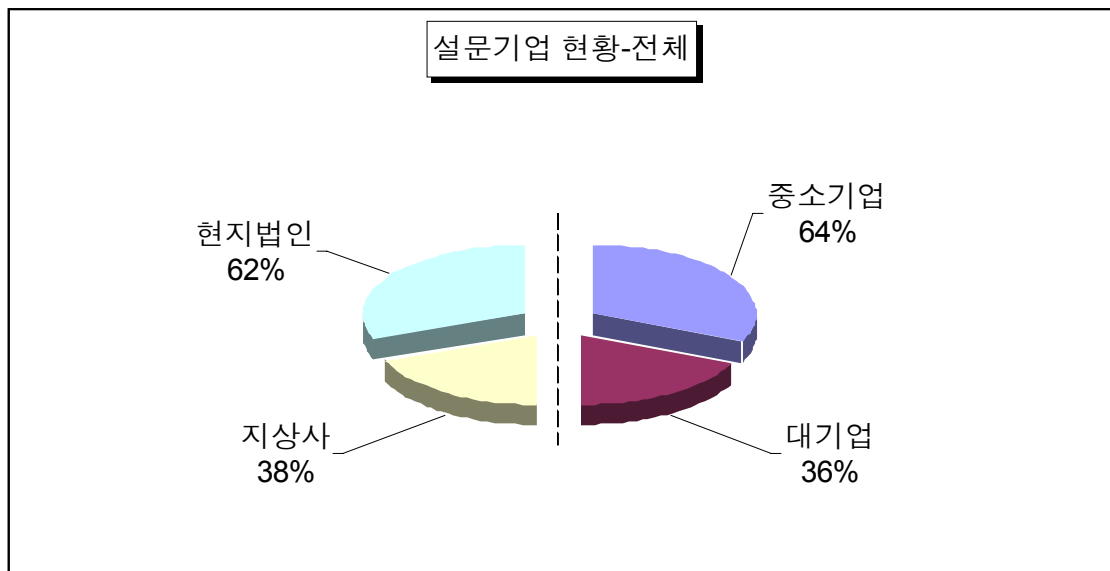
- 중국 32%, 일본 18%, 대만 16%, 아세안국가 15%순으로 조사됨
- 중국이 경쟁국이라고 밝힌 기업은 67%가 현지법인인 동시에 70%는 중소기업이며, 일본이 경쟁국이라고 밝힌 기업은 55%가 지상사인 동시에 85%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남

- **한-아세안FTA체결시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 전망**
 - 응답기업의 86%는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개선 정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높음
- **한-아세안FTA체결에 대비한 종합 대응방안**
 - 아세안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투자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45%로 나타남
 - 또한, 현지 시장을 활용하여 제3국 진출을 강화하겠다는 응답도 17%에 이르며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20%에 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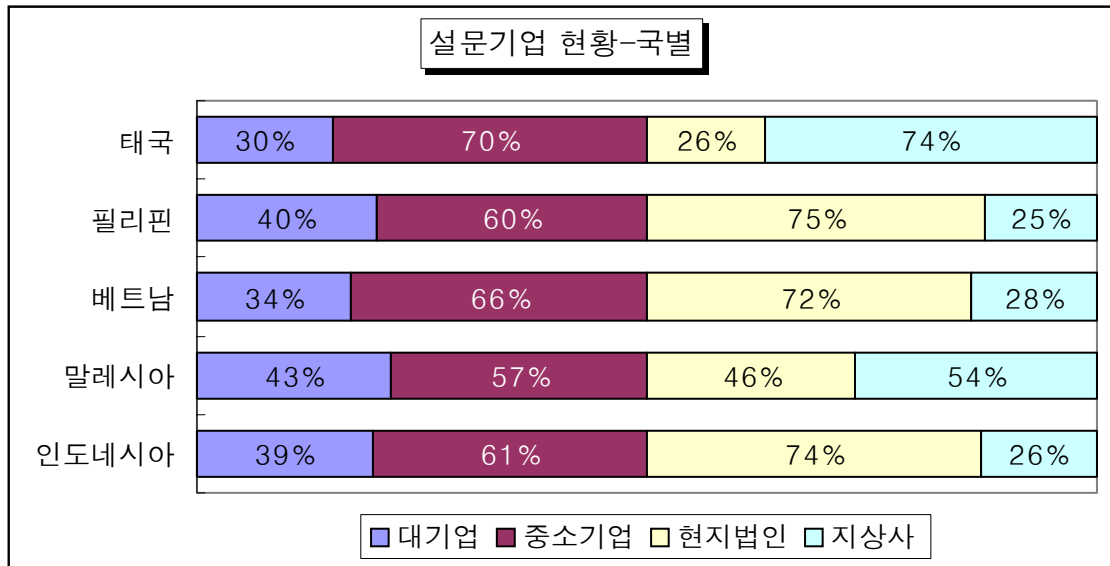
1. 설문기업 현황

가. 기업규모

- 설문에 응한 159개사중 64%인 101개사가 중소기업이었으며 36%에 해당하는 58개사가 대기업임
- 진출형태별로 보면, 현지법인이 62%인 98개사였으며 지상사는 38%인 61개사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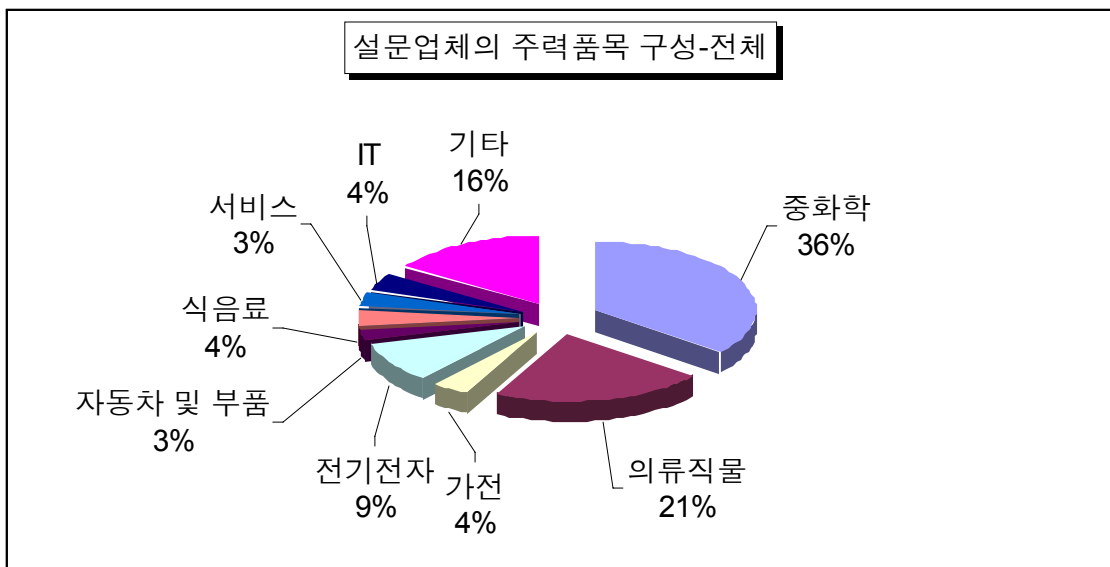


- 국별로 보면, 태국은 중소기업의 구성비가 70%로 가장 높았으며 말레이시아는 조사대상 5개국 중에서는 대기업의 비율이 43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또한, 필리핀, 베트남, 인도네시아는 현지법인의 비율이 70%를 상회한 반면, 태국은 유일하게 지상사 비율이 74%로 현지법인의 비율을 훨씬 초과함



나. 설문업체의 주력품목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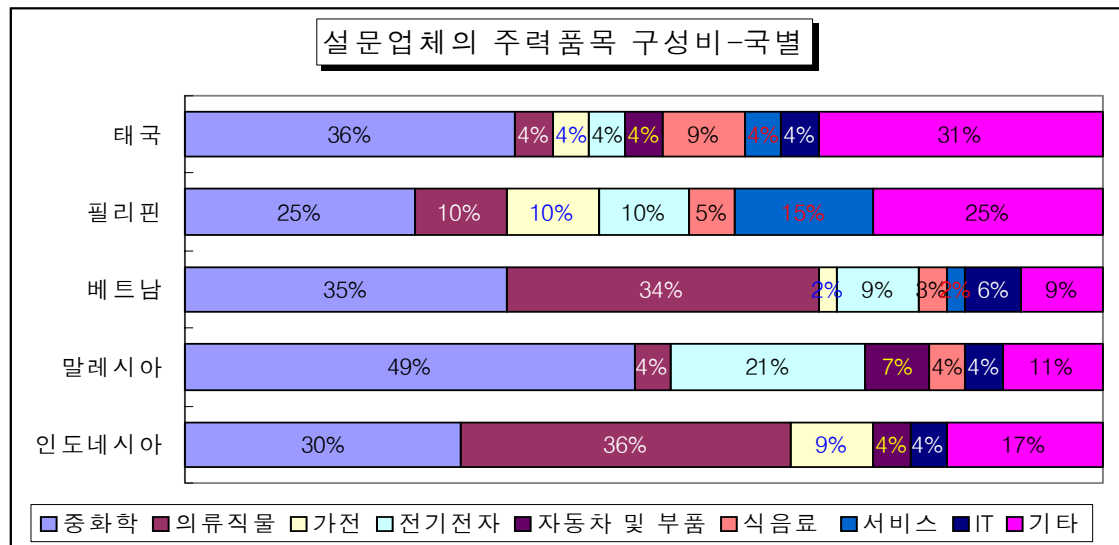
- 설문에 응한 기업의 주력품목에 따른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철강, 기계, 화학, 플랜트, 건설장비, 금속 등을 포함한 중화학이 36%로 가장 많았으며, 의류식품은 21%, 전선 및 전기전자부품, 전기설비를 포함한 전기전자 9%, 가전 및 식음료가 각각 4%로 나타남



주1) 중화학 : 철강, 기계, 화학, 플랜트, 건설장비, 금속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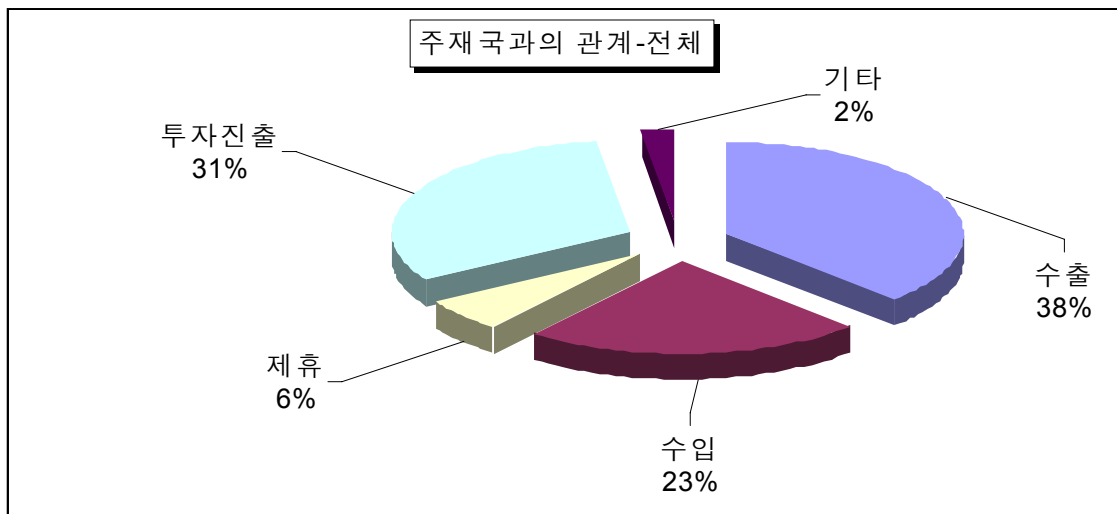
주2) 전기전자 : 전선 및 케이블, 전기전자부품, 전기설비 포함

- 진출기업의 업종 중 중화학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중화학이 49%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. 또한,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는 의류직물 기업의 구성비가 30%이상을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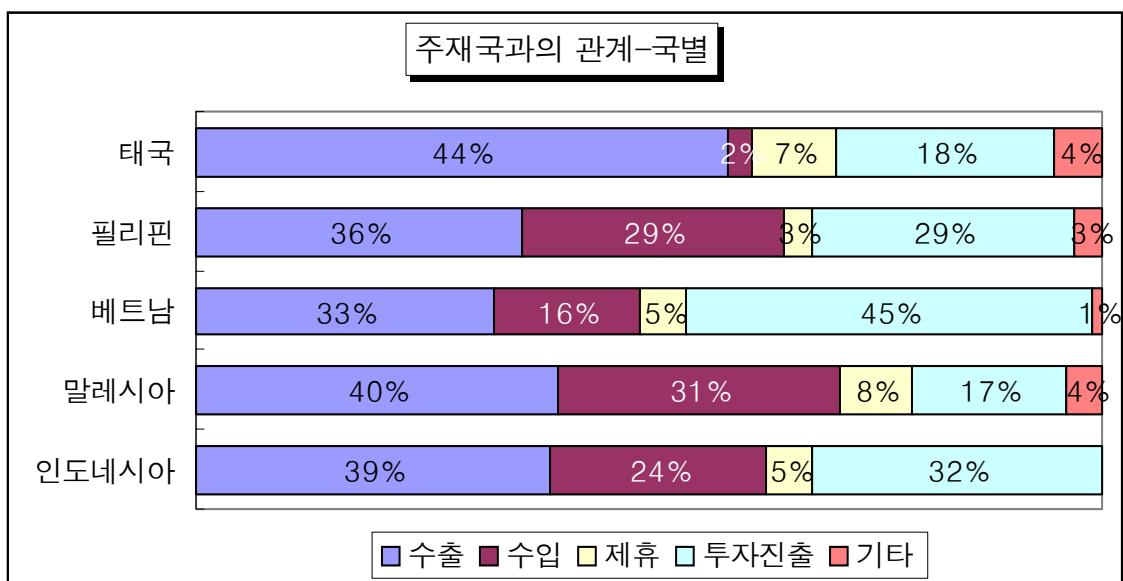


2. 기업활동에서의 주재국과의 관계

- 기업활동에서의 주재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주재국 '수출'이 가장 많은 38%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'투자진출' 31%, '수입' 23%, '제휴(기술 및 판매제휴, 생산위탁 등)' 6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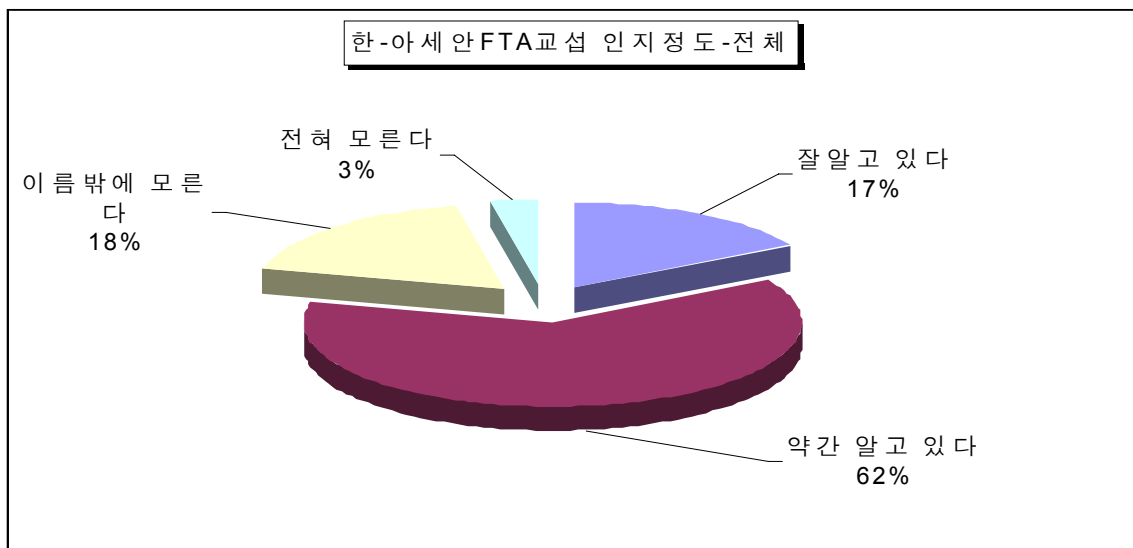


- 국별로 보면, 태국의 경우에는 '수출'이 44%, 베트남은 '투자진출'이 45%로 다른 분야보다 많은 것이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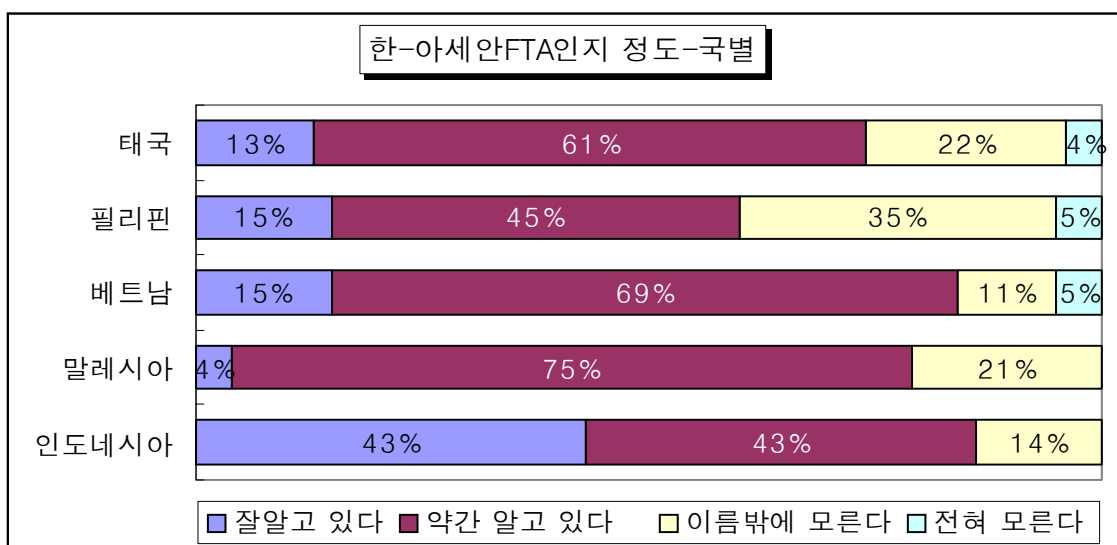


3. 한-아세안 FTA체결교섭에 대한 인지정도

- 설문에 응한 현지 진출기업의 79%가 잘 알고 있거나 약간 알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-아세안FTA에 대해 주지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'이름밖에 모른다'는 18%, '전혀 모른다'는 응답은 3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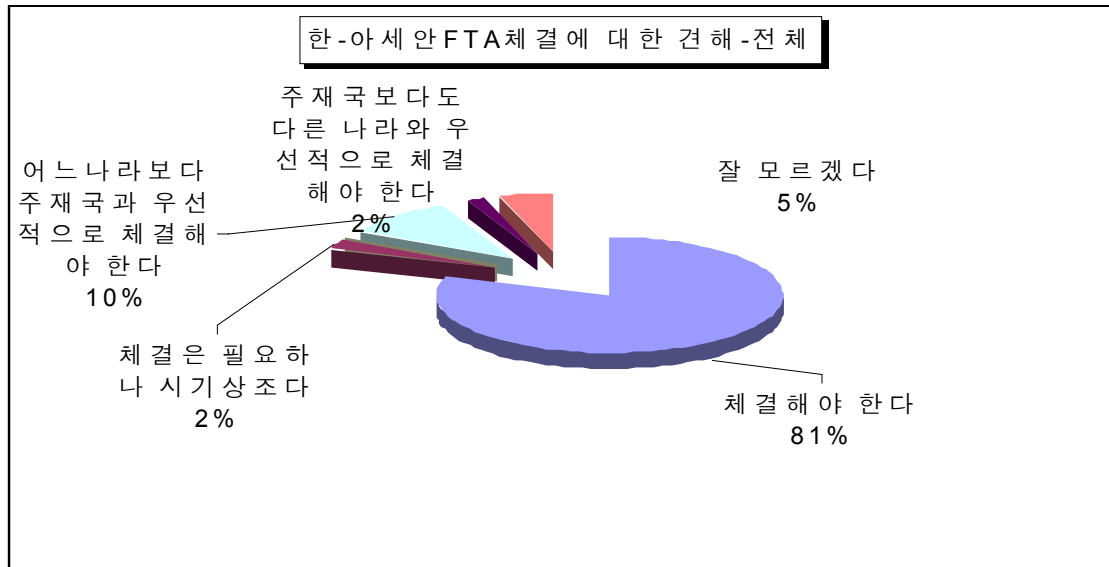


- 국별로는,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경우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80%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'잘 알고 있다'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43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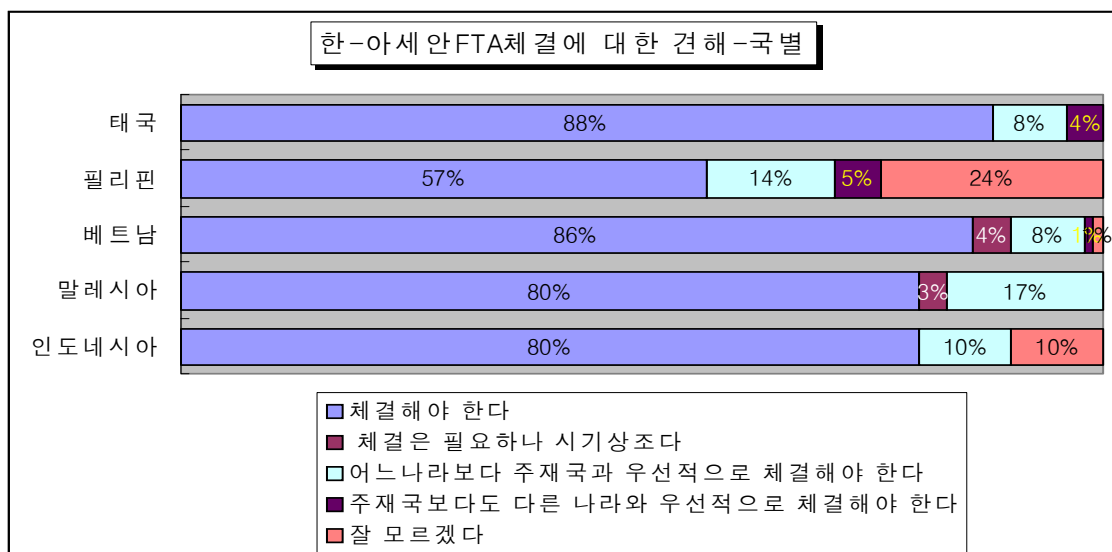


4. 한-아세안FTA체결에 대한 견해

- 한-아세안FTA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대다수인 91%가 '체결해야 한다'고 답했으며 '체결은 필요하나 시기상조' 2%, '잘 모르겠다' 5% 등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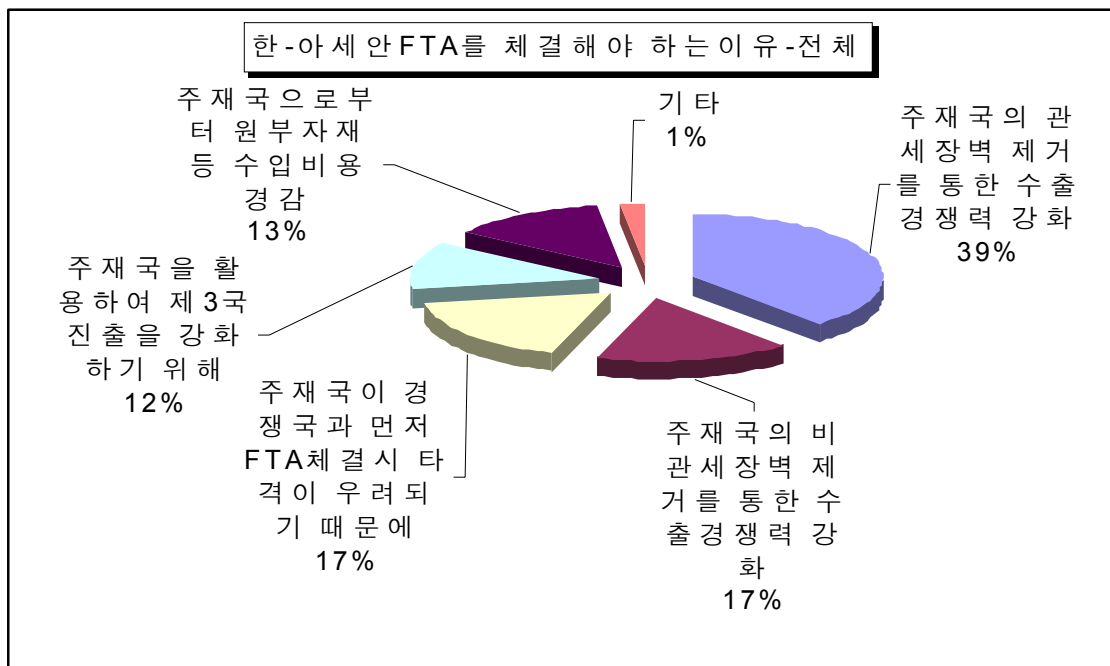


-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출기업들은 한-아세안FTA체결에 대해 90%를 훨씬 초과하는 지지율을 보인 반면, 필리핀에서는 '체결해야 한다'가 71%, '잘 모르겠다'는 응답도 24%로 5개국 중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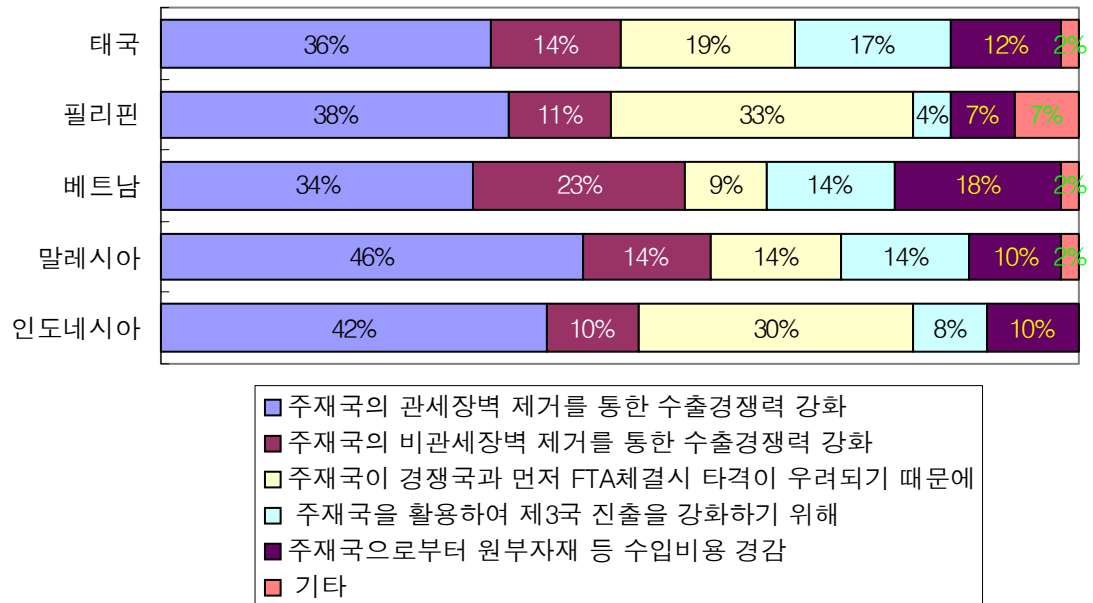
5. 한-아세안FTA 체결해야 하는 이유

- 현지 진출기업들이 한-아세안FTA체결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'주재국의 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'가 39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'주재국이 경쟁국과 먼저 FTA체결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' 17%, '주재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수출경쟁력강화' 17%, '주재국을 활용하여 제3국 진출 강화' 12% 순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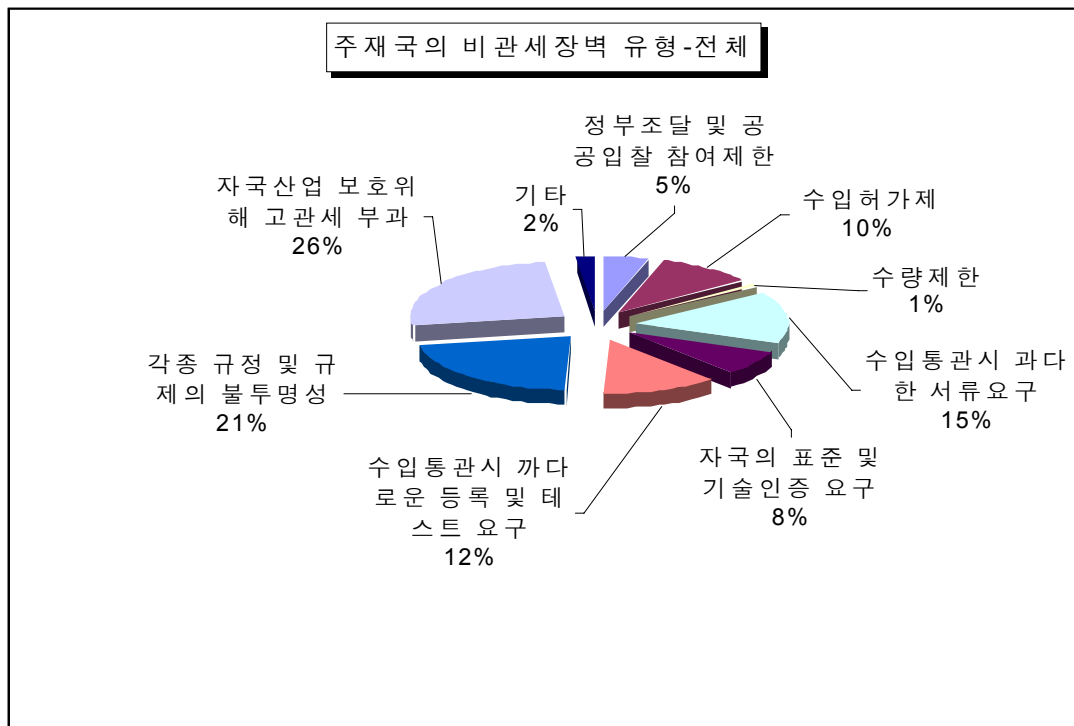
- 국별로는, 한-아세안FTA체결 당위성으로써 '주재국의 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'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모든 국가에서 30~40%대의 비율을 보인 가운데,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주재기업의 경우 '주재국이 경쟁국과 먼저 FTA체결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'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%에 이르고 있음
- 기타 의견으로 필리핀 진출 K사의 경우 FTA협상시 Open Sky를 포함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, 태국주재 W사의 경우에는 관세 환급비용 절감을, 말레이시아주재 S사는 FTA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들어 FTA체결을 지지하고 있음

한-아세안FTA를 체결해야 하는이유-국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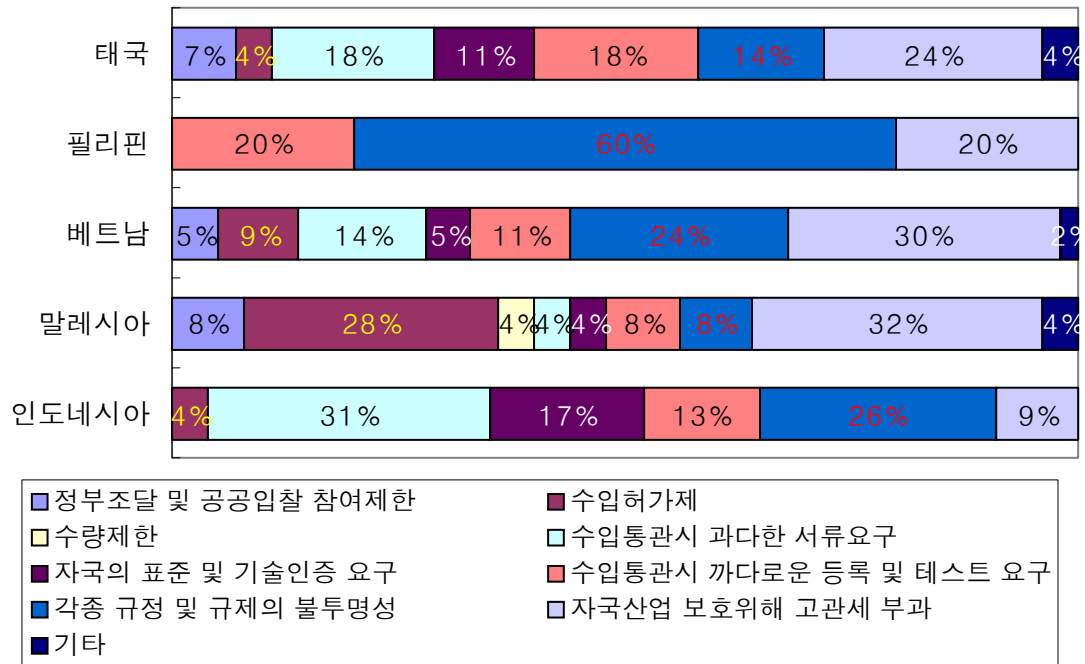
5-1. 주재국의 비관세 장벽 유형

- 한-아세안FT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로써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비관세장벽의 내용을 문의한 결과, 아세안국가들이 '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'가 27%로 가장 많았으며 '각종 규정 및 규제의 불투명성' 21%, '수입통관시의 과도한 서류요구' 15%, '수입통관시의 까다로운 등록 및 테스트 요구' 12%, '자국의 표준 및 기술인증 요구' 8% 순으로 나타남
- 기타의견으로 말레이시아소재 Y사는 말레이우대정책(Bumi Puetra)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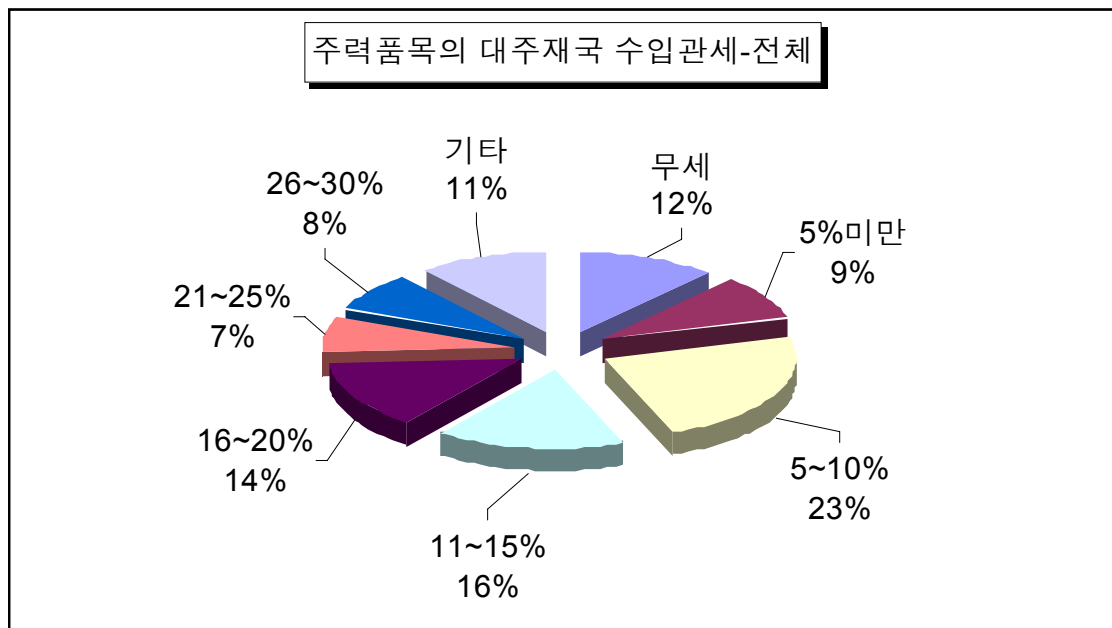
- 비관세장벽의 경우 국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필리핀은 '각종 규정 및 규제의 불투명성'이 60%로 가장 많았으며, 인도네시아는 '수입통관시 과도한 통관서류 요구' 31%, 말레이시아는 '자국산업 보호위한 고관세부과' 32%, '수입허가제' 28%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

주재국의 비관세장벽 유형-국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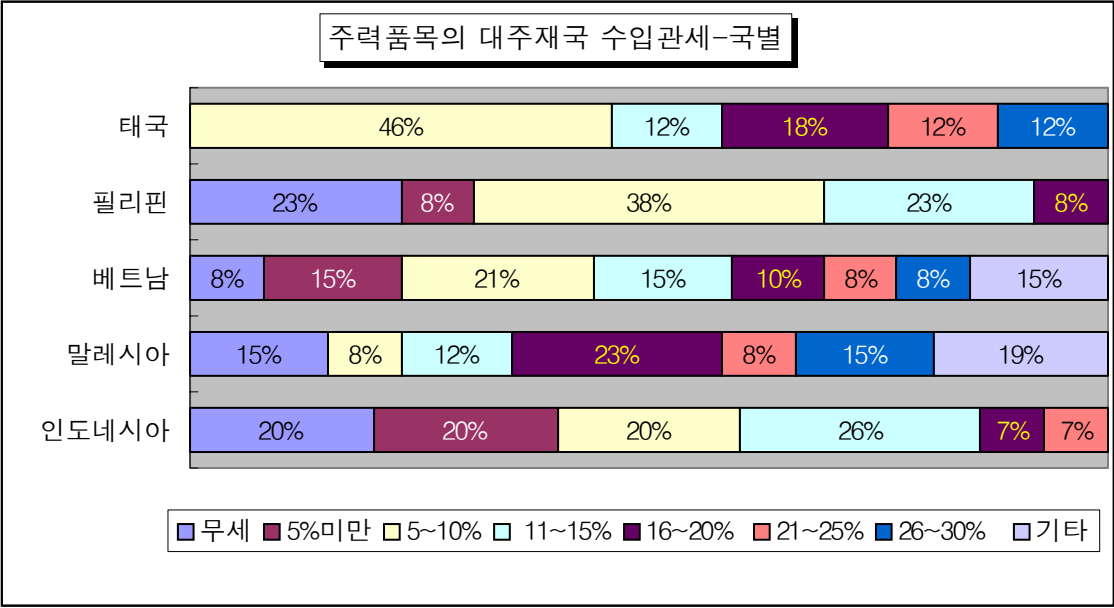


5-2. 주력품목의 대주재국 수입관세

- 관세장벽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에 주력품목의 수입관세에 대해 문의한 결과, 5~10%가 가장 많은 23%를 차지하였으며, 11~15%는 16%, 16~20%는 14%, 26~30%는 8%로 다양한 분포를 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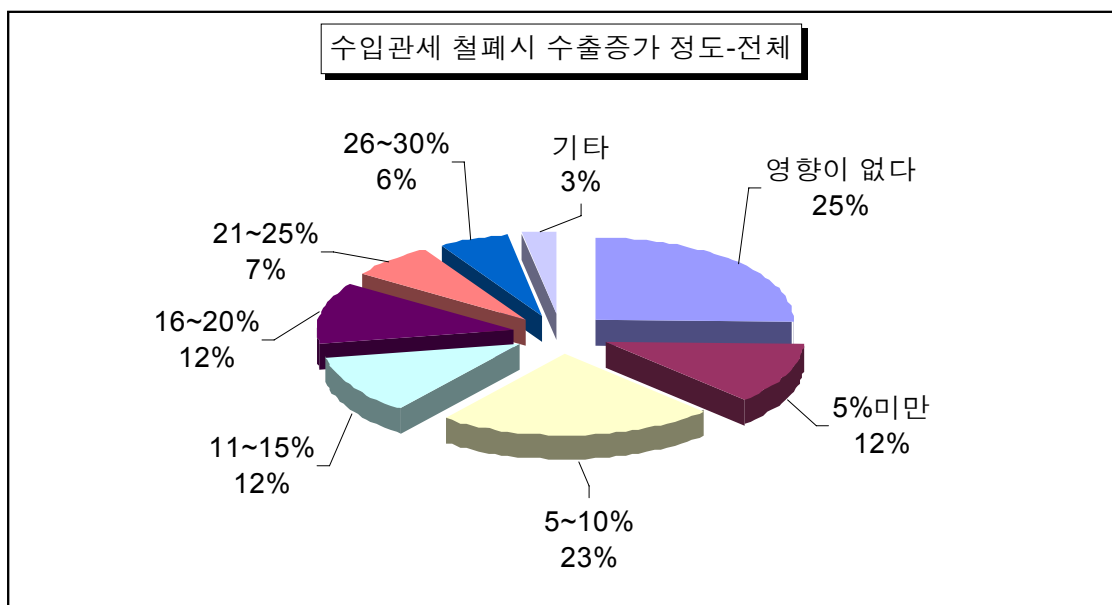
- 국별로는, 수입관세율 5~10%는 태국이 46%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, 필리핀, 베트남, 인도네시아 순으로 뒤를 잇고 있는 한편,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무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20%를 초과한 것도 특징
- 주력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내역을 보면, 말레이시아의 경우 철강 및 화학 50%, 타이어 54%, 자동차에는 80%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일부 식품 및 전기전자제품에 50%, 일부 직물 및 알미늄주방기구 40%, 건설중장비는 30~40%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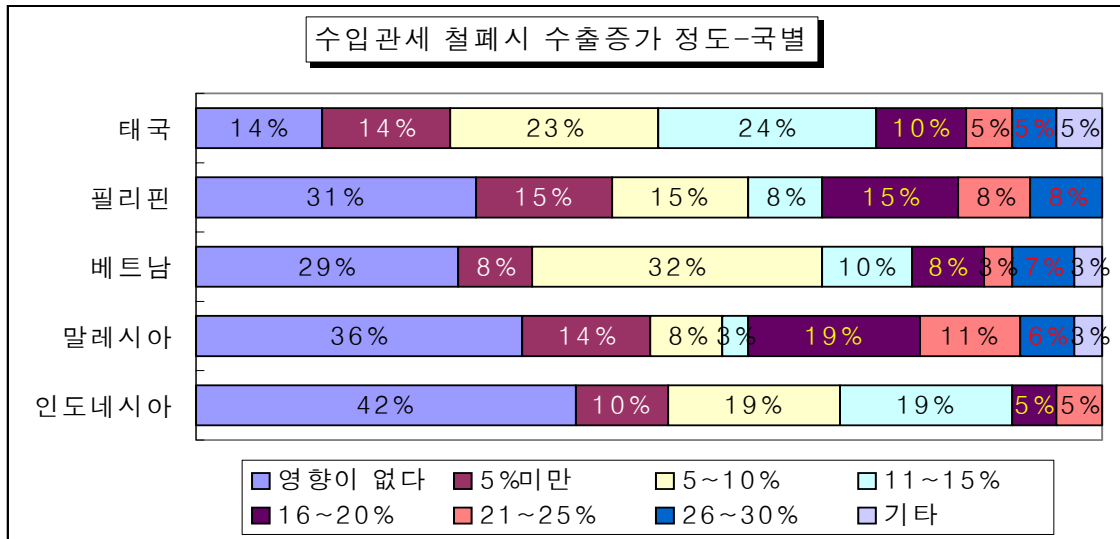
6. 수입관세 철폐시 연간 수출증가 예상액

가. 연간 수출증가 정도

- FTA체결로 주력품목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연간 수출증가 정도에 대해서는 의외로 '영향이 없다'가 25%로 제일 많았으나 5~10%는 23%, 11~15% 및 16~20% 그리고 5%미만이 각각 12%로 기타 3%를 포함, 전체적으로 '증가한다'가 75%를 차지함. 특히 말레이시아 주재 H사의 100%, 베트남 및 태국주재 일부기업의 경우 50%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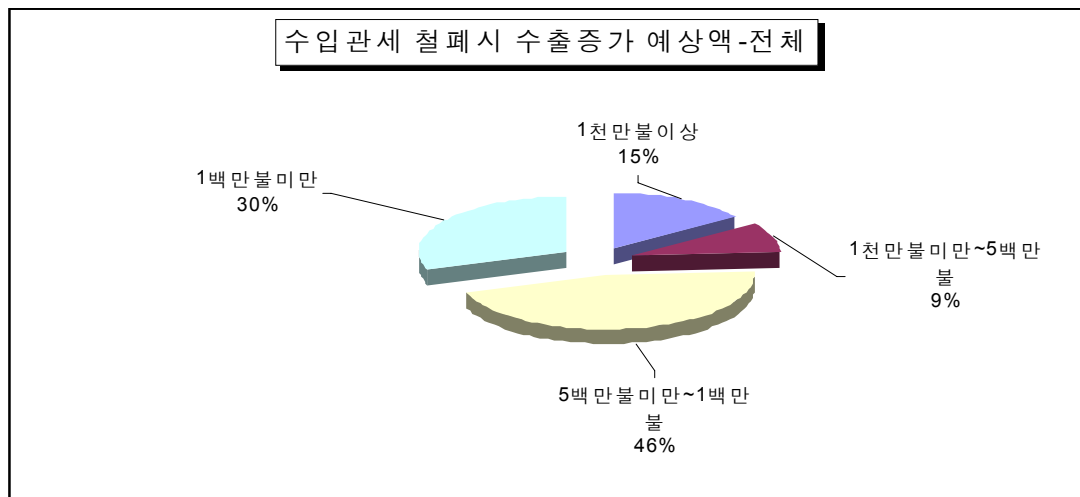


- 국별로는,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'증가한다'는 응답은 태국이 86%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71%, 필리핀 69%, 말레이시아 64%, 인도네시아 58% 순으로 나타남
- 반면, '영향이 없다'는 응답은 인도네시아가 42%로 가장 높으며, 태국은 14%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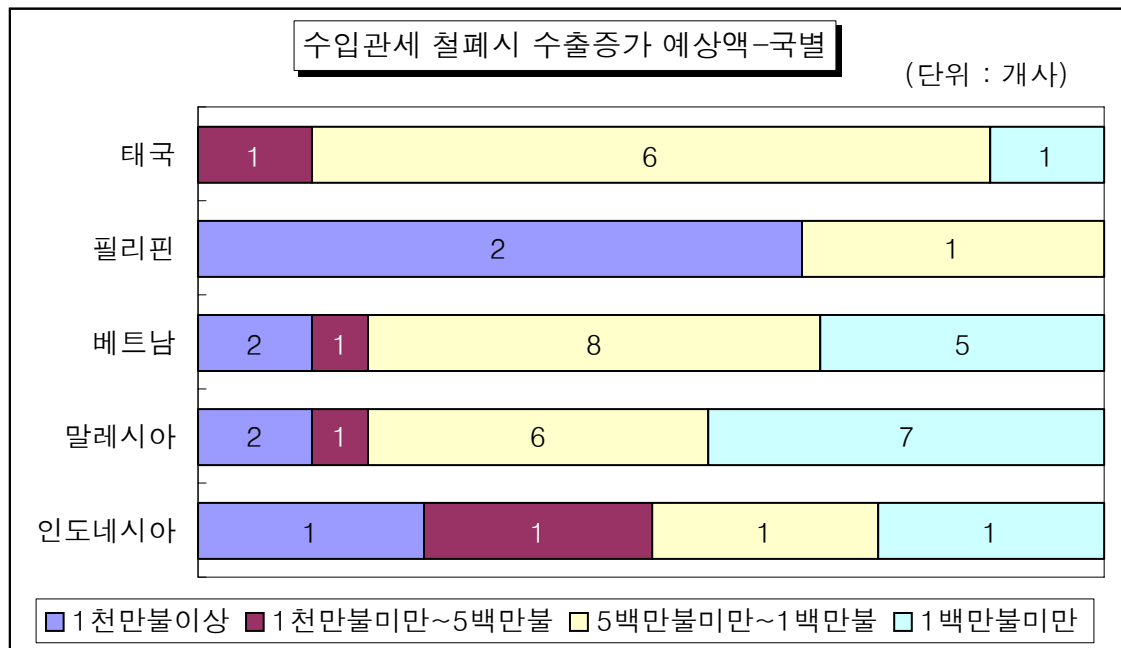


나. 수출증가 예상액

- 수출증가액을 기재한 47개사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%가 연간 수출증가액이 5백만불에서 1백만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1백만불미만은 30%, 1천만불이상도 15%에 달함
- 기업규모별로 볼 때 1천만불이상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모두 대기업 지상사로 나타났으며 1천만불미만으로 응답한 기업 40개사의 경우 중소기업이 73%, 대기업은 28%로 대기업 지상사일수록 수출증가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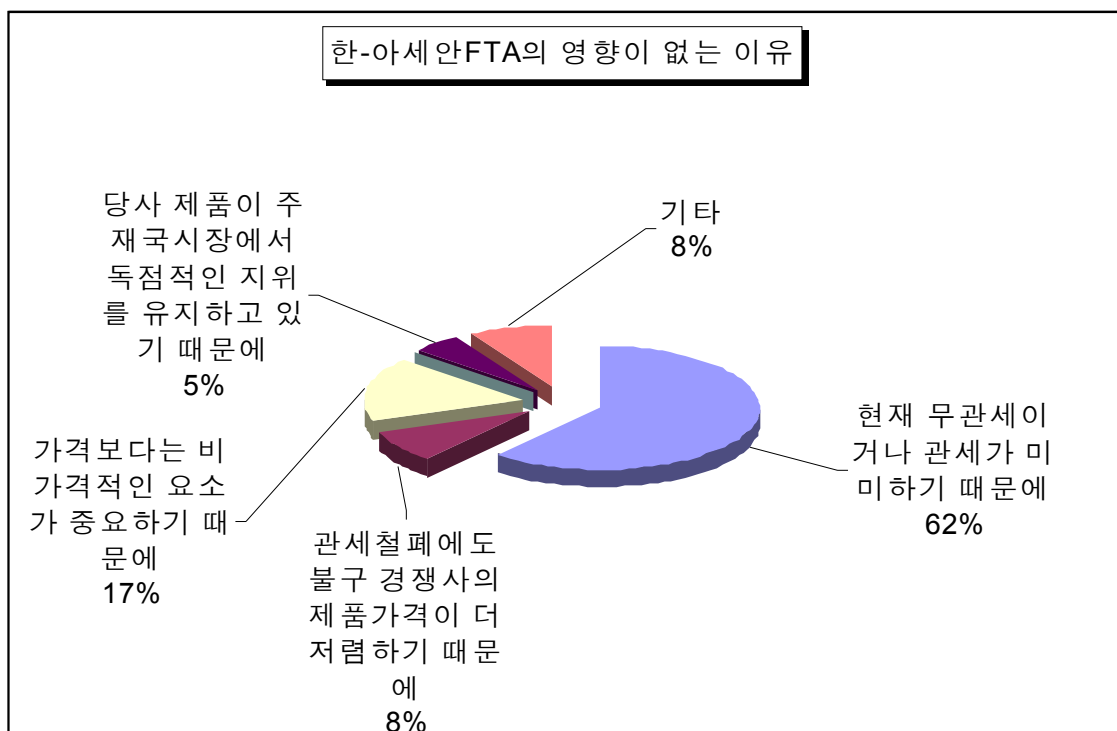


- 국별로 보면 '1천만불 이상'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필리핀, 베트남, 말레이시아가 각각2개사, 태국, 베트남, 말레이시아는 '5백만불미만~1백만불이상'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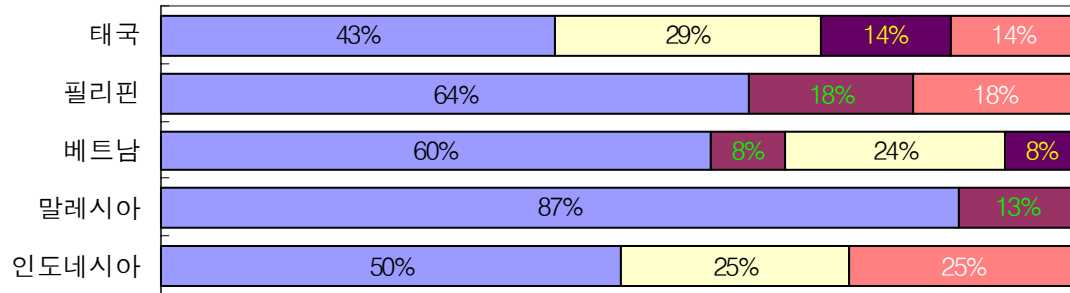
6-1. 한-아세안FTA의 영향이 없다면 그 이유

-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한 기업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62%가 '현재 무관세이거나 관세가 미미하기 때문'이라고 응답하였음. 그밖에 '비가격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'이라고 밝힌 기업은 17%, '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제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'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%로 나타남



- 국별로는, '현재 무관세이거나 관세가 미미하기 때문'이라고 밝힌 기업은 말레이시아가 87%로 압도적이며 필리핀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. '가격보다는 비가격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'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태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25% 내외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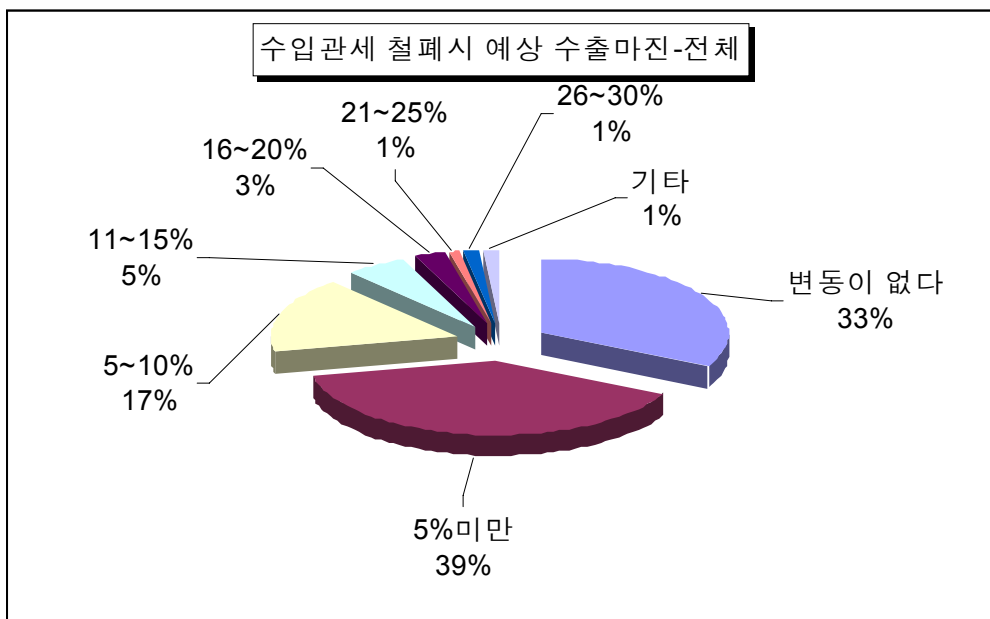
한-아세안FTA의 영향이 없는 이유-국별



- 현재 무관세이거나 관세가 미미하기 때문에
-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제품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
- 가격보다는 비가격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
- 경쟁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
- 당사 제품이 주재국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
-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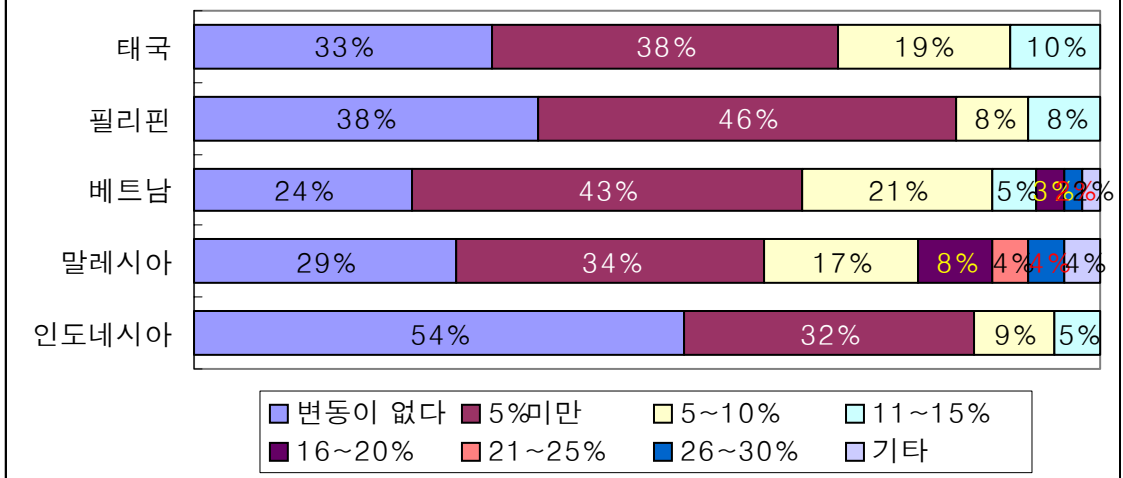
6-2.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현지 예상 수출마진

- 주력품목의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예상 수출마진의 경우 69%가 증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“5%미만 증가”가 39%로 가장 많았으며, “5~15%”는 17%, “11~15%”는 5%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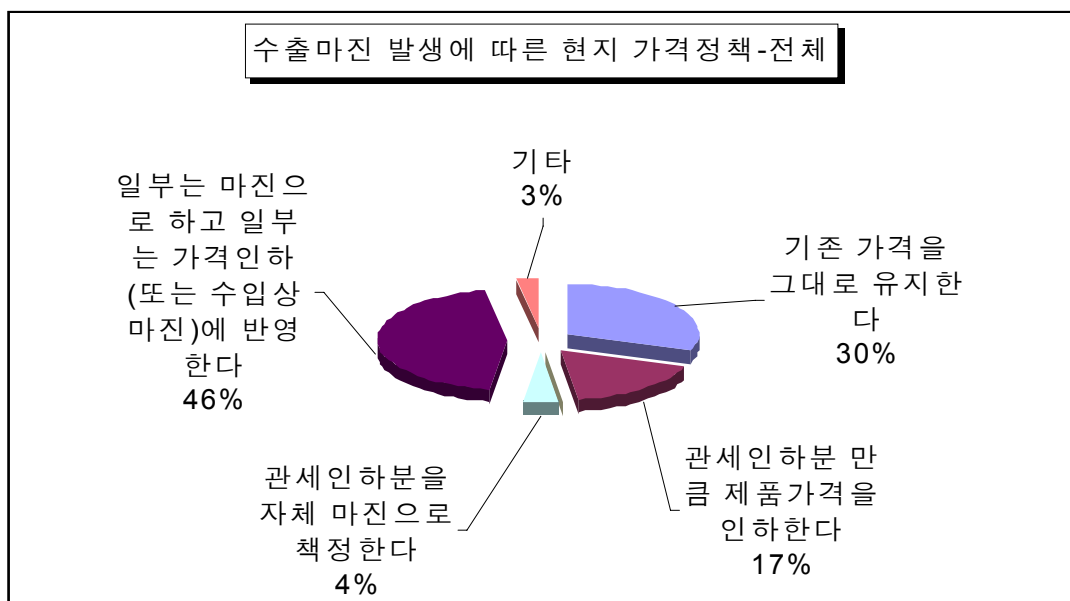
- 진출형태별로는, ‘5%미만’이라고 응답한 54개사의 경우에는 현지법인 57%, 지상사는 42%로 나타났으며, ‘변동이 없다’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78%, 지상사는 22%에 불과하여 현지법인이 지상사보다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
- 국별로는, 수출마진 증가가 ‘변동이 없다’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여타 국가에서는 ‘5%미만’이 ‘변동이 없다’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. 또한, ‘5~10%’는 베트남,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 순으로 높게 나타남

수입관세 철폐시 예상 수출마진 증가-국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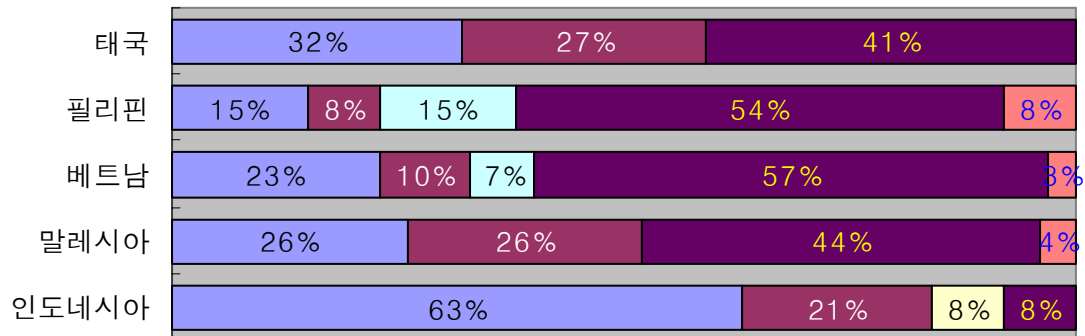
6-3. 수출마진 발생에 따른 현지 가격정책

- 수출마진 발생에 따른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46%에 이르는 기업이 '일부는 마진으로 하고 일부는 가격인하(또는 수입상 마진)에 반영한다'고 밝혔으며 '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'는 30%, '관세인하분 만큼 제품가격을 인하한다'는 17%로 나타남. 특히 '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'고 밝힌 44개사중 70%가 현지법인으로 조사됨



- 국별로는, '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'고 응답한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63%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, '일부는 마진으로 하고 일부는 가격인하에 반영한다'고 응답한 기업은 필리핀 및 베트남에서는 50%를,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40%를 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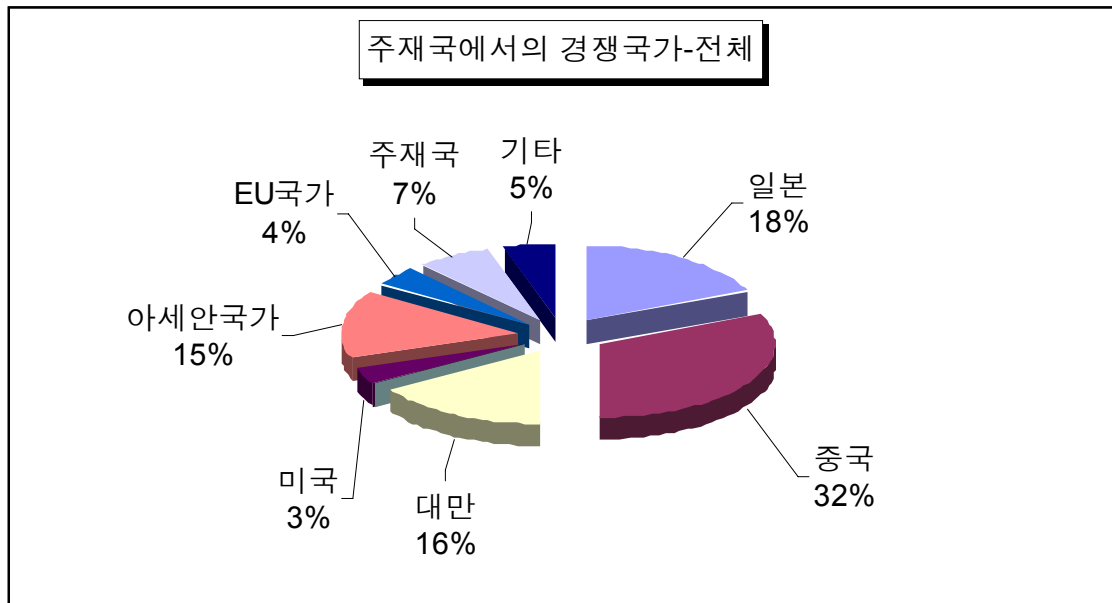
수출마진 발생에 따른 현지 가격정책-국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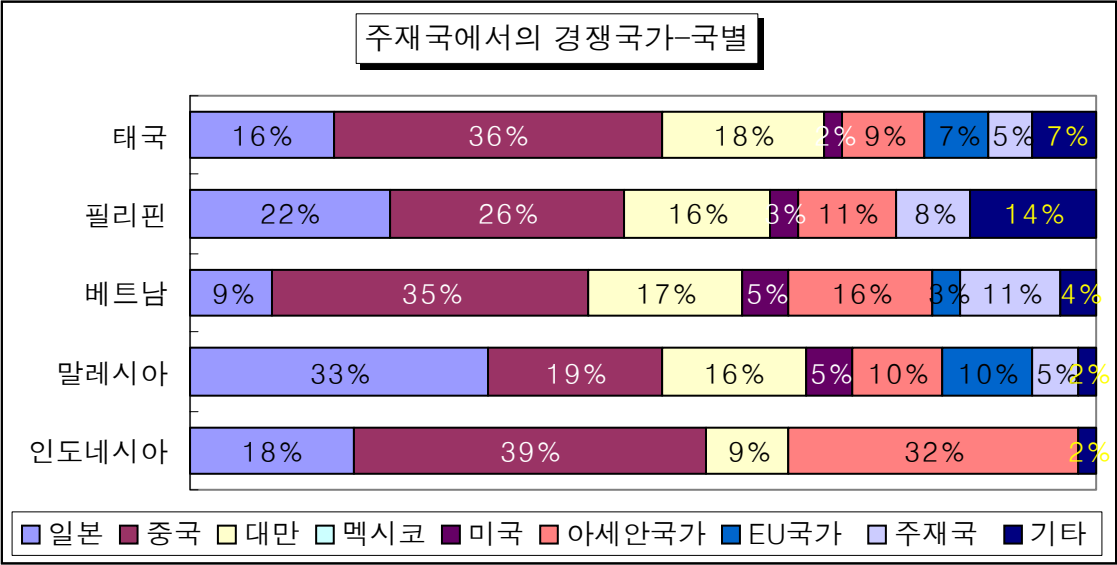
-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
- 관세인하분 만큼 제품가격을 인하한다
- 관세인하분을 수입상(또는 딜러) 마진으로 제공한다
- 관세인하분을 자체 마진으로 책정한다
- 일부는 마진으로 하고 일부는 가격인하(또는 수입상마진)에 반영한다
- 기타

7. 주재국에서의 경쟁국가

- 경쟁국을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32%가 중국으로 꼽았으며, 일본은 18%, 대만 16%, 아세안국가 15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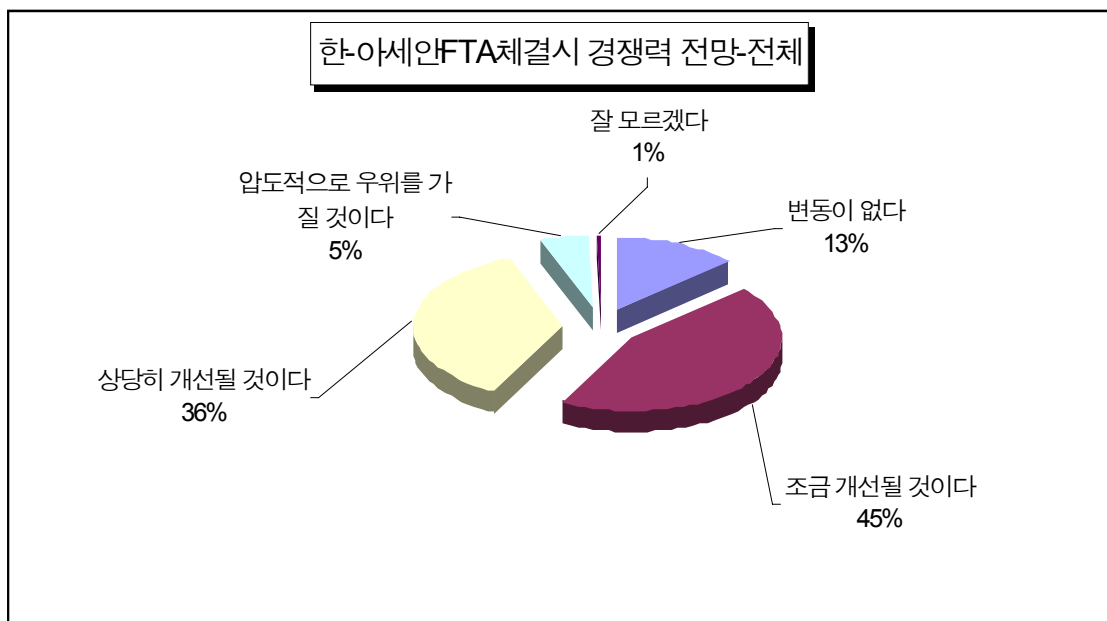


- 현지 진출형태 및 기업규모별로 보면, 중국을 경쟁국으로 꼽은 기업은 67%가 현지법인이며 이 중 70%가 중소기업으로 이러한 비율은 대만과 아세안을 경쟁국으로 꼽은 기업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중국, 대만, 아세안국가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판단됨. 반면, 일본을 경쟁국으로 꼽은 기업은 지상사가 55%로 이 중 대기업이 85%를 차지해 대조를 보임
- 국별로는, 일본이 경쟁국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33%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경쟁국이라고 밝힌 기업은 인도네시아가 39%로 제일 많음.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세안국가가 경쟁국이라고 밝힌 비율이 제일 많은 32%에 달하는 것이 특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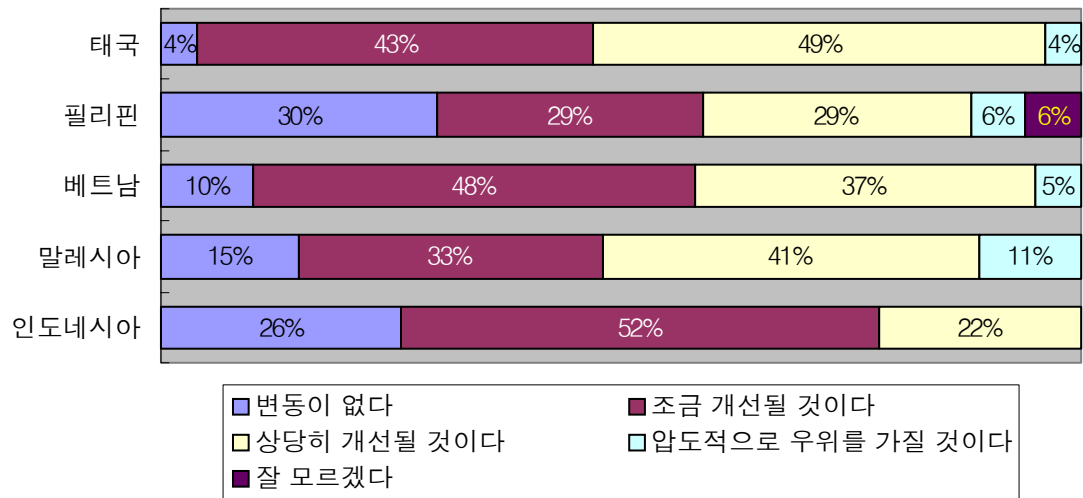
8. 한-아세안FTA체결시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 전망

- 한-아세안FTA가 체결되면 경쟁국기업과 자사의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는 ‘조금 개선될것이다’ 45%, ‘상당히 개선될 것이다’ 36%, ‘압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’는 5%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전보다 경쟁력이 개선된다는 의견이 86%로 절대다수를 차지함
- 진출형태 및 기업규모별로 보면,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개선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‘변동이 없다’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86%이며 이 중 중소기업이 91%를 차지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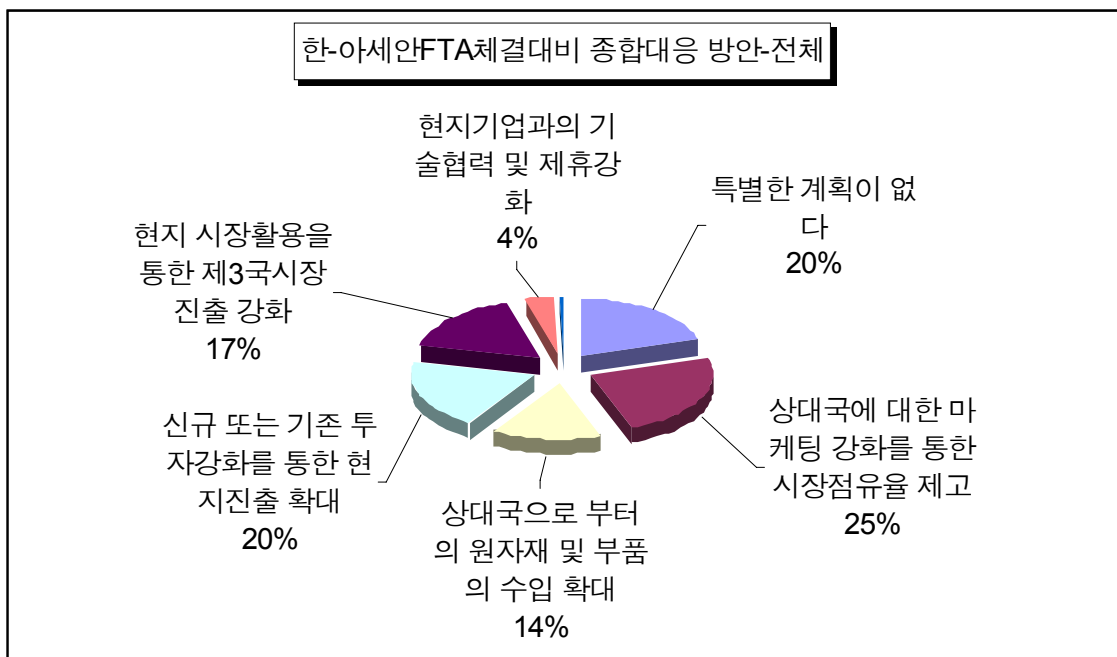
- ‘개선될 것이다’로 응답한 기업을 주재국별로 보면 태국이 96%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한편, 베트남진출 L사의 경우 현지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상대가 증가하므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지적하기도 함

한-아세안FTA체결시 경쟁력 전망-국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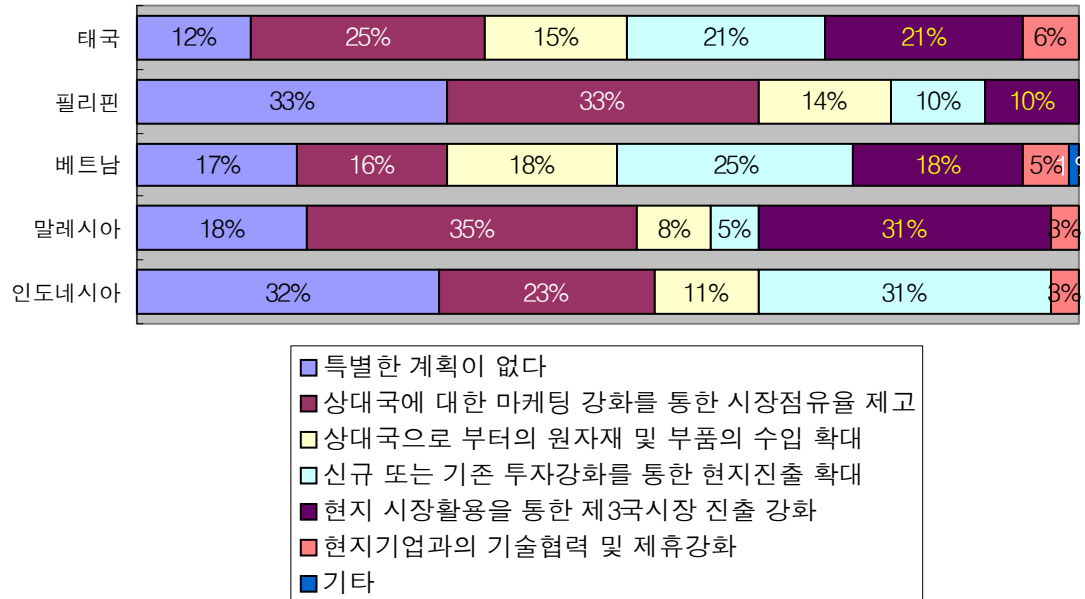
9. 한-아세안FTA체결에 대비한 종합 대응방안

- 한-아세안FTA체결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‘상대국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’가 가장 많은 25%를 차지하였으며 ‘신규 또는 기존 투자강화를 통한 현지진출 확대’ 19%, ‘상대국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부품수입 확대’ 15%, 나타났으며 ‘특별한 계획이 없다’는 20%에 달함



- 국별로는,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‘상대국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제고’가 30%이상을 차지하였으며, 인도네시아에서는 ‘신규 또는 기존 투자강화를 통한 현지진출 확대’가 31%로 제일 많음. 또한,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시장 활용을 통한 제3국 시장진출확대’가 31%로 높은 비율을 보임

한-아세안FTA대비 종합대응 방안-국별



작성자

■ 통상전략팀

김현태 책임연구원

한-아세안 FTA 영향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

발행인 : 홍기화

발행처 : KOTRA

인쇄처 : 학림사 02)752-0463

발행일 : 2005년 5월
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-9
(우 137-749)

전 화 : 02)3460-7114(대표)

홈페이지 :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 2005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